

대학생의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른 정서,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차이연구

조진희¹⁾

진미경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 연구는 Taylor와 Ray(2012)가 개발한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를 타당화한 한국판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K-APPA)를 통해 개인의 성격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성격유형에 따라 정서,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충남지역의 대학생 463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4가지 성격우선순위(기쁘게하기, 통제, 우월성, 편안함)에 따라 주요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격우선순위에 따라 긍정 정서에서 우월성이 편안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격우선순위에 따라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에서 우월성, 기쁘게하기, 통제가 편안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에서는 우월성과 기쁘게하기가 편안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에서 우월성이 기쁘게하기, 통제, 편안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쁘게하기는 편안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에서는 우월성이 기쁘게하기, 통제, 편안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K-APPA)를 통해 성격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심리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들러, 성격우선순위, 정서,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아동심리치료전공, 석박사통합과정

2)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E-mail: mkjin12@sookmyung.ac.kr)

I. 서론

심리검사는 인간의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이 아닌 특정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황정규, 1997).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하나의 심리검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상담 장면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심리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제안된다(김동일, 이영선, 1995). 각 심리검사도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담자의 내면을 올바르게 탐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측정도구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심리 상담센터에서는 성격심리검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성격심리검사에는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에니어그램(enneagram)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편, 한 개인의 삶의 목적과 태도, 가치, 자아개념 등 그 개인의 독특한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토대로 생활양식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생활양식에 따라 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김난예, 김춘경, 2003; Kefir, 1971). 아들러 성격유형의 우선순위를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는 개인의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핵심욕구 및 신념을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김난예, 김춘경, 2003). 즉, 아들러의 성격유형론은 개인을 전문적이고 좀 더 빠르게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가능한 것이며 이는 상담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Holden, 1991). 따

라서 개인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격 우선순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 제시되어 있는 측정도구들과는 또 다른 시야에서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아들러 성격우선순위란 아들러 학파에서 제안한 개인의 생활양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각 개인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조진희, 진미경, 2017). 초창기에 이루어진 성격우선순위 연구는 크게 Kefir(1971, 1981)의 연구와 Pew(1974, 1976)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Kefir(1971, 1981)는 아들러의 우선순위 개념을 성격우선순위 개념으로 발전시켰으며, 모든 사람이 성격우선순위라고 명명한 4가지 이론적 구조(편안함, 기쁘게하기, 통제, 우월)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피하고자 했던 경험들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네 가지 성격우선순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쁘게하기를 추구하는 성격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이 거부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우월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노력이 의미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혹스럽게 되거나 비웃음 당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였다(Ashby & Kottman, 2000).

Kefir와 더불어 초창기부터 성격우선순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Pew(1974, 1976)는 개인이 자신의 성격우선순위를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우선순위의 형성과 식별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동력을 강조했다. Pew (1976)가 주장한 성격우선순위의 특징에 따르면 기쁘게하기를 추구하는 성격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월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헌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발전하려고 하거나 우위에 서려고 노력한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정감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을 찾는다.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을 통제하거나 타인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Kefir와 Pew는 성격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Dewey(1991)는 이러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Dewey(1991)는 개인이 피하고자 하는 상황과 소속감이나 의미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관련된 개인의 목표,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성격우선순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어 온 척도 개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Langenfeld(1983)는 성격우선순위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을 통합하여 성격우선순위척도(Langenfeld Inventory of Personality Priorities, LIPP)를 개발한 결과, Kefir와 Cornisi (1974)의 이론적 연구에서 제시된 4가지 요인과는 다른 5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LIPP 요인들에 의해 처리된 변수는 설명력이 21.91%로 상당히 낮았고(Dimitrov, 2012), 상담장면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Allen,

2005). 이에 상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성격우선순위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Allen (2005)은 AAAPP(Allen Assessment for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표본이 107개밖에 되지 않아 일반화에 문제가 있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문항 적재값이 부족해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조진희, 진미경, 2017; Taylor, 2013). 이후, Taylor와 Ray (2012)는 Allen(2005)이 개발한 AAAPP의 유효성 및 일반화 문제를 보완하고, 이론적 문헌에 의해 제안된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격우선순위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생 1,210명을 표본으로 하여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APPA)를 개발하였다. APPA의 장점은 Kefir(1971)가 제시한 아들러 성격우선순위의 4요인과 동일한 4가지 하위 요인을 갖고 있으며(조진희, 진미경, 2017) 변수의 설명력이 기존의 척도들보다 높은 47.6%로 나타나(Taylor, Ray, & Henson, 2015) 아들러 이론에 가장 부합하는 척도로서의 차별성이 있다(DeLaet & Wise, 1986; Kefir & Corsini, 1974; Kutchins, Culett, & Kern, 1997). 이러한 차별성에 근거하여 최근 APPA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조진희, 진미경, 2017). 연구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한 편안함, 기쁘게하기, 통제, 우월성의 4가지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합한 검사도구로 보고되었다(조진희, 진미경, 2017).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격우선순위와의 관련성을 탐색할 변인으로 정서,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제시하였다. 이 변인들은

성격 관련 연구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성격 차이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강영걸, 김종호, 2009; 정순우, 최정아, 김은진, 2013; Hullman, Planisek, McNally, & Rubin, 2010). Brief, Butcher, George와 Link(1993)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정서 수준에 따라 자기효능감을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고려하면(백유미, 2017) 성격이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Folkman과 Lazarus(1985)에 의하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격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성격우선순위와 정서,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shby, Kottman과 Rice(1998)는 성격우선순위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심, 내적통제성, 역기능적 태도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또한 우울, 애착관계에서의 두려움, 자기효능감, 긍정 혹은 부정 정서와 성격우선순위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연구하였다(Ashby & Kottman, 2000).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쁘게하기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많고, 역기능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긍정 정서도 우월성 유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진희, 진미경, 2017; Ashby et al., 199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중시하는 기쁘게하기 유형이 타인을 즐겁게 해주고자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 위주로 활동하고,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을 나타내준다. 또한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게 되며 에너지와 집중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성격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Ashby & Kottman, 2000). 또한 우월성 유형은 성취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취와 연관되는 자기효능감이 높고 에너지의 원동력인 긍정 정서를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진희, 진미경, 1997; Ashby, Kottman, & Rice, 1998). 이는 우월성에 대한 Kefir(1971, 1981)의 제안 중 성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이론적 배경과 일치한다(Ashby & Kottman, 2000). 또한 편안함 유형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역기능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기쁘게하기와 우월성 유형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안함 유형이 감정적, 신체적 불편 사항 및 접촉을 회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유형임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조진희, 진미경, 2017; Ashby et al., 1998). 통계 유형은 사회적 관심이 적고, 역기능적 태도가 높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함에 부정적이며 시선 집중을 피하고 자신을 높은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성격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조진희, 진미경, 2017; Ashby et al., 1998; Ashby & Kottman, 2000). 이를 종합하면,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라 개인이 지각하는 긍정 및 부정 정서와 자기효능감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으로 개인의 성격에 따라 그 종류, 정도 및 대처방식 등이 다르게 발현한

대(민창기, 김동균, 김인기, 2013). 예를 들면, 똑같은 긴장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를 부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즉 성격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이에 반응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성격우선순위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Kern, Gfroerer, Summers, Culette와 Matheny(199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특성을 가진 기쁘게하기 유형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 다른 성격우선순위 유형보다 긍정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조진희, 진미경, 2017; Friedman et al., 1995; Kern et al., 1996).

이처럼 성격유형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정서 강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서, Ashby와 Kottman(2000)은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유형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우선순위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하여 임상도구로서의 성격우선순위를 활용하는 데에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성격의 차이로 명확히 규명되는 본 연구의 변인이 아직 국내에서는 실증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shby와 Kottman(2000)의 제안에 따라 K-APPA를 통해 개인의 성격우선순위 따라 나타나는 성격 특성의 차이를 규명하여 상담 및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격우선순위 특성에 따라 긍정 및 부정 정서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성격우선순위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성격우선순위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소재의 S대학과 충남 소재의 B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만 18-29세이며 평균(표준편차) 연령은 19.49세(1.4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본문에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연구도구

성격우선순위척도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Ray(2012)가 개발한 APPA를 조진희와 진미경(2017)이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타당화한 한국판 아들러 성격우선순위 검사(K-APPA)를 사용하였다. K-APPA는 아들러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21개 문항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5는 '매우 그렇다', 4는 '대체로 그렇다', 3은 '보통이다', 2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다. 채점은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463)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성	250	54.0	종교	기독교	178	38.4
	여성	213	46.0		천주교	30	6.5
학년	1학년	390	84.2		불교	21	4.5
	2학년	53	11.4		무교	220	47.5
	3학년	13	2.8		기타	14	3.0
	4학년	7	1.5	성격 우선순위 그룹	기쁘게하기	115	24.8
전공	인문사회계열	205	44.5		우월성	172	37.1
	자연공학계열	88	19.0		편안함	99	21.4
	경상계열	8	1.7		통제	40	8.6
	예술체육계열	108	23.3		미해당	37	8.0
	의학간호계열	21	4.5				
	기타	32	6.9				

하위 영역별로 전체 점수를 더하고 문항수로 나누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요인이 그 사람의 성격우선순위로 해석된다. 또한 결과에 가장 높은 점수가 두 가지 우선순위로 표시되면 이는 의미와 소속을 얻는 방법이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Taylor, 2013).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그룹에 동시에 속해있으면 차이검증이 불가하므로 우선순위에서 동점을 갖는 케이스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기쁘게하기는 .83, 우월성은 .85, 편안함은 .79, 통제는 .79였고 전체는 .82로 나타났다.

긍정, 부정 정서 척도

본 연구에서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에 의해 개발된 긍정, 부정 정서척도(PANAS)

를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개의 하위 범주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개의 특징적 정서차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긍정 정서척도의 10개 문항은 개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늘 생기 있는지'를 반영한다. 부정 정서척도 10개 문항은 '일반적인 괴로움과 즐겁지 않음, 불쾌한 기분상태'를 측정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긍정 정서 .75, 부정 정서는 .86이었고 전체는 .84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

Sherer 등(1982)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을 실제 심리치료나 행동수정 등에 적용하면서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의 심리치료나 행동수정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개인적 수준을 측정해내는 자기효능감 척도(SES)를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홍혜영(1995)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SES)는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6 문항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84, 사회적 자기효능감 .61, 전체 .87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5)이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처방식 척도를 토대로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서 만든 62개 문항으로 구성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정희(1987)는 하위 유형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누고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소극적 대처에는 정서 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로 분류하였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개인 및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여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을 말하며 사회적 지지추구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정서완화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뜻하고 소망적 사고 대처는 스트레스나 그것을 유발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각 문항은 '아주 많이 사용', '어느 정도 사용', '약간 사용', '사용하지 않음/해당없음'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문제 중심적 대처는 .72, 사회적 지지추구는 .66, 정서완화적 대처는 .61, 소망적 사고는 .76, 전체는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데이터의 정규분포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라 주요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적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 = 463)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기쁘게 하기	3.46	.57	-.41	.47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	15.73	2.85	.08	1.69
우월성	3.55	.71	.09	-.16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14.63	2.93	.01	-.06
편안함	3.28	.66	-.02	.16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18.53	3.56	.34	.81
통제	2.75	.80	.08	-.01	자기효능감	74.49	10.66	.38	.95
긍정정서	31.99	5.01	-.26	.90	일반적 자기효능감	55.20	7.97	.34	.88
부정정서	27.10	6.40	-.12	-.26	사회적 자기효능감	19.29	3.16	.23	.68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13.00	2.59	-.06	1.12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서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의 왜도 범위는 -.41~.38, 첨도 범위는 -.26~1.69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가 8보다 작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Kline, 2005).

2.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긍정정서, 부정정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긍정정서는 부정정서와 모든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으며 나머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는 정적상관이 있고, 자

기효능감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끼리는 모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정서중심대처와는 부적상관이 있고, 소망적사고대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긍정 및 부정 정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를 적용하였다. 이후의 모든 분석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동점을 갖는 37사례를 제외한 426사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긍정 및 부정 정서의 분석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공분산행렬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p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N = 463)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문제 중심대처	사회적 지지대처	정서 중심대처	소망적 사고대처	자기 효능감
긍정정서	1						
부정정서	.33***	1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42***	.03	1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	.39***	.15*	.64***	1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19***	.24***	.23***	.34***	1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31***	.24***	.50***	.53***	.46***	1	
자기효능감	.30***	-.44***	.40***	.25***	-.25***	-.02	1
<i>M</i>	31.99	27.10	13.00	15.73	14.63	18.53	74.49
<i>SD</i>	5.01	6.40	2.59	2.85	2.93	3.56	10.66

* $p < .05$. *** $p < .001$.

표 4.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긍정 및 부정 정서의 차이

(N = 426)

변인	Group	<i>n</i>	<i>M</i> ± <i>SD</i>	<i>F</i> (<i>p</i>)	<i>Scheffé</i>
긍정정서	기쁘게 하기(a)	115	31.73±4.85	10.64*** (.000)	b > c
	우월성(b)	172	33.32±4.99		
	편안함(c)	99	29.89±4.83		
	통제(d)	40	32.20±4.21		
부정정서	기쁘게 하기(a)	115	27.67±6.55	2.40 (.068)	-
	우월성(b)	172	26.19±6.66		
	편안함(c)	99	27.36±6.10		
	통제(d)	40	28.73±5.06		

*** $p < .001$.

= .026) 다변량 검정에서 Pillai's Trace 통계량 값을 확인하였는데 영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변인들의 선형조합의 평균이 성격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었다($F = 8.27$, $p < .001$). 각 종속변인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한 단변량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긍정정서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0.64$, $p < .001$). 구체적으로는 우월성이 편안함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부정정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공분산행렬이 동질하므로($p = .053$) 다변량 검정에서 Wilks' Lambda 통계량 값을 확인하였는데 영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변인들의 선형조합의 평균이 성격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었다($F = 5.69, p < .001$). 각 종속변인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한 단변량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7.17, p < .001$). 구체적으로는 우월성, 기쁘게 하기, 통제가 편안함보

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54, p < .01$). 구체적으로는 우월성과 기쁘게 하기가 편안함보다 사회적지지추구 대처방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공분산행렬이 동질하므로($p = .327$) 다변량 검정에서 Wilks'

표 5.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N = 426$)

변인	Group	<i>n</i>	<i>M</i> ± <i>SD</i>	<i>F</i> (<i>p</i>)	<i>Scheffé</i>
문제중심적 대처방식	기쁘게 하기(a)	115	13.17±2.56	13.14*** (.000)	b, a, d > c
	우월성(b)	172	13.63±2.45		
	편안함(c)	99	11.69±2.63		
	통제(d)	40	13.05±2.00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	기쁘게 하기(a)	115	15.88±3.10	4.46** (.004)	b, a > c
	우월성(b)	172	16.19±2.72		
	편안함(c)	99	14.97±2.83		
	통제(d)	40	15.72±2.24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기쁘게 하기(a)	115	14.54±2.75	2.42 (.066)	-
	우월성(b)	172	14.29±2.97		
	편안함(c)	99	14.98±2.95		
	통제(d)	40	15.48±2.99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기쁘게 하기(a)	115	18.55±3.66	1.17 (.322)	-
	우월성(b)	172	18.84±3.51		
	편안함(c)	99	18.00±3.70		
	통제(d)	40	18.45±3.05		

** $p < .01$. *** $p < .001$.

표 6.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N = 426)

변인	Group	n	M±SD	F(p)	Scheffé
자기효능감	기쁘게 하기(a)	115	74.41±9.93	27.11*** (.000)	b > a, d, c a > c
	우월성(b)	172	78.91±10.03		
	편안함(c)	99	68.02±9.87		
	통제(d)	40	71.75±7.99		
일반적 자기효능감	기쁘게 하기(a)	115	55.40±7.21	19.23*** (.000)	b > a, d, c a > c
	우월성(b)	172	58.47±7.46		
	편안함(c)	99	50.00±7.50		
	통제(d)	40	53.43±6.00		
사회적 자기효능감	기쁘게 하기(a)	115	19.01±3.18	15.92*** (.000)	b > a, d, c
	우월성(b)	172	20.44±2.98		
	편안함(c)	99	18.02±2.97		
	통제(d)	40	18.33±2.67		

*** $p < .001$.

Lambda 통계량 값을 확인하였는데 영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속변인들의 선형조합의 평균이 성격우선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F = 15.72, p < .001$). 각 종속변인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한 단변량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27.11, p < .001$). 구체적으로는 우월성이 기쁘게 하기, 통제, 편안함보다 높고 기쁘게 하기는 편안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36.89, p < .001$). 구체적으로는 우월성이 기쁘게 하기, 통제, 편안함보다 높고 우월성은 통제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사

회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9.23, p < .001$). 구체적으로는 우월성이 기쁘게 하기, 통제, 편안함보다 높고 기쁘게 하기는 편안함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격우선순위에 따른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5.92, p < .001$). 구체적으로는 우월성이 기쁘게 하기, 통제, 편안함보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아들러 성격우선순위를 타당화한 한국판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K-APPA)를 통해 성격우선순위 유형별로 나타나는 차이점

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심리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라 정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른 긍정 정서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월성 유형은 편안함 유형보다 긍정 정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Ashby와 Kottman(2000)의 연구에서 우월성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 정서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우월성 유형이 우월감과 목표를 중심으로 생활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원동력인 긍정 정서의 수준이 높다는 성격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결과이다(Taylor, 2013; Taylor et al., 2015). 또한 Ashby와 Kottman(2000)의 연구에 따르면 편안함 유형은 감정적으로 불편하거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며, 자신이나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나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우월성 유형에 비해 긍정 정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둘째,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문제중심적 대처에서는 기쁘게하기, 우월성, 통제가 편안함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shby 등(1998)의 연구에 따르면 편안함 유형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불편한 일이

나 문제를 회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편안함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에서도 성격우선순위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우월성 유형과 기쁘게하기 유형이 편안함보다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hby 등(1998)의 연구에 따르면 기쁘게하기 유형은 사회적 관심 수준이 높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쁘게하기 유형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성향이 있음을 반영해주는 결과이다(권석만, 2000; 조진희, 진미경, 2017; Ashby & Kottman, 2000).

셋째,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우선순위 유형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한 Ashby와 Kottman(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우월성이 기쁘게하기, 편안함, 통제 유형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hby 등(1998)의 연구에서 우월성 유형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선행연구에서 우월성 유형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성취를 목표로 하여 자기효능감을 유지하고 강화시킨다는 성격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결과이다(Ashby & Kottman, 2000; Taylor, 2013; Taylor et al., 2015). 반대로, 기쁘게하기 성격우선순위를 가진 개인은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hby

와 Kottman(2000)의 연구에서 기쁘게하기 유형이 다른 사람 위주로 활동하고 자기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뚜렷하지 않으며 자기효능감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Ashby 등(1998)의 연구에서도 기쁘게하기 유형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기쁘게하기 유형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편안함을 성격우선순위로 가진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Ashby와 Kottman(2000)의 연구에서 편안함 유형의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선행연구에서 편안함 유형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불편한 일을 피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성격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조진희, 진미경, 2017; Ashby & Kottman, 2000; Taylor, 2013; Taylor et al., 2015).

이상을 종합하면, 성격우선순위에 따라 정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내담자의 성격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방략을 사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쁘게하기, 편안함, 통제 유형의 성격우선순위를 가진 개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효능감을 보였고, 이러한 내담자들의 자기효능감을 구축하는 것이 치료에서 가치 지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통제유형의 성격우선순위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함에 있어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때 비교를

지양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기쁘게하기 우선순위를 가진 내담자들은 타인에게 받은 피드백으로부터 내담자 자신에 대한 지각 및 성과를 분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안함의 성격우선순위를 가진 내담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힘들게 일해야 하거나 보상을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상담 장면에서는 특히 편안함 유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안함 유형은 대체로 부정정서 외에 본 연구의 다른 변인들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dler(1979)에 따르면 편안함을 우선순위로 갖는 개인들은 자신의 일만 신경 쓰며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어떠한 상황을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로 임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이러한 특징은 결국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자기효능감을 낮추고 비교적 건강하지 못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우월성 유형이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듯 아들러 이론에서도 우월성이 지식이 풍부하고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는 등의 인간의 건강한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편안함 유형의 내담자가 인간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우월성(Adler, 1979)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성격, 자아감, 생활구조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현상들이 변화한다(김애순, 1990; Gutmann, 1964; 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 McKee, 1978; Neugarten, 1968). 이러한 변화과정에 있어 성격우선순위를 통한 상담 및 교육은 성인기 성격발달 과정에서의 자아(self) 변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德勒 상담에서는 개인의 독특한 생각, 감정, 행동양식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이 개인마다 고유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생활양식은 성격(personality), 심리(psyche), 특성(character)의 의미로 통용된다. 생활양식이 개인의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및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기본개념이라고 할 때, 생활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격우선순위를 통한 상담 및 교육은 개인의 고유한 발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격우선순위검사(K-APPA)가 상담 및 교육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고 생활양식에 기반한 개인의 고유한 발달 과정에서의 상담 및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인간발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별로 정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는 성격 유형별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른 변인들로도 확장하여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학생의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자살사고는 성격적 특성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건석, 2017). 여기서 성격우선순위 또한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확보하여 성격우선순위와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는 대학 관련 기관의 실무적 함의를 줄 것이다. 둘째, 아德勒 이론을 통해 개발된 성격우선순위 도구는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국내와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면밀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느 성격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규정될 수 있거나 기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걸, 김종호 (2009). 대학상담: 대학생의 Egogram 성격특성과 인지적 삶의 만족과의 관계: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0(1), 627-650.
- 권석만 (2000). 우울증: 침체와 절망의 늪. 서울: 학지사.
- 김난예, 김춘경 (2003). 성격 우선순위검사 (K-PPS)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4(4), 615-629.
- 김동일, 이영선 (1995). 청소년행동평가 체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검사개발, 활용실태 및 발전방향.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애순(1990). 성인기 성격발달에 대한 이론적

- 개관(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 74-88.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창기, 김동균, 김인기 (2013). 사관생도의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공사논문집, 64(2), 180-197.
- 백유미 (2017). 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 대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신경증과 성실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 이건석 (2017). 자살사고가 있거나 자살기도를 한 대학생의 기질 및 성격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정순우, 최정아, 김은진 (2013). 중등교사의 성격 5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교육치료연구, 5(1), 65-82.
- 조진희, 진미경 (2017). 한국판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K-APPA)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인간발달연구, 24(1), 139-157.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 (1997). 학교장면에서 사용되는 현행 심리검사의 문제점. 대학생활연구, 7, 37-49.
- Adler, A. (1979).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Allen, E. G. S. (2005). *Assessing the Adlerian personality priorities: A formal instrument for therapeutic practi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 Ashby, J. S., & Kottman, T.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priorities and affect, depression, self-efficacy, and fear of intimacy.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6*(2), 172-183.
- Ashby, J. S., Kottman, T., & Rice, K. G. (1998). Adlerian personality priorities: Psychological and attitudi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6*(4), 467-474.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4), 646.
- Delaet, T. J., & Wise, S. L. (198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sonality priorities inventory for adolesc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6*(2), 455-459.
- Dewey, E. A. (1991). *Basic Applications of Alderian Psychology for Self-understanding and Human Relationships*. CMTI Press.
- Dimitrov, D. M. (2012). *Statistical methods for validation of assessment scale data in counseling and related fields*.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Friedman, H. S., Tucker, J. S., Schwartz, J. E., Martin, L. R., Tomlinson-Keasey, C., Wingard, D. L., & Criqui, M. H. (1995). Childhood conscientiousness and longevity: Health behaviors and cause of dea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96-703.
- Gutmann, D. L. (1964). An exploration of ego configurations in middle and later life. In B. L. Neugarten (Ed.), *Personality in middle and later life*. New York: Atherton.
- Holden, J. M. (1991). The most frequent personality priority pairings in marriage and marriage counselling.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47(3), 392-398.
- Hullman, G. A., Planisek, A., McNally, J. S., & Rubin, R. B. (2010). Competence, personality, and self-efficacy: Relationships in an undergraduate interpersonal course. *Atlantic Journal of Communication*, 18(1), 36-49.
- Kefir, N. (1971). *Priorities: A different approach to life style and neurosis*. Paper presented at ICASSI, Tel-Aviv, Israel.
- Kefir, N. (1981). Impasse/priority therapy. In R. Corsini (Ed.), *Handbook of innovative psychotherapies* (pp. 400-415). New York: John Wiley & Sons.
- Kefir, N., & Corsini, R. J. (1974). Dispositional sets: A contribution to typology.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0(2), 163-178.
- Kern, R. Gfroerer, K., Summers, Y., Curlette, W., & Matheny, K. (1996). Life-style, personality, and stress coping.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2(1), 42-5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utchins, C. B., Curlett, W. L., & Kern, R. M. (1997). To what extent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priorities and life style theme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3(4), 373-387.
- Langenfeld, S. D. (1983). *Personal priorities: A factor analytic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Dakota, Vermillion.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L., & McKee, B. (1978). *The season of men's life*. New York: Knopf.
- Neugarten, B. I. (1968).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w, W. L. (1974). *The number one priority*. Paper presented at the 22nd annual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Society of Adlerian Psychology, Chicago.
- Pew, W. L. (1976). The number one priorit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ividual Psychology*. Munich: Germany.
- Sherer, M., Maddux, J. E., Prentice-Dunn, B. M.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Taylor, D. D. (2013). *Confirming the construct of the*

-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 (APP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 Taylor, D. D., & Ray, D. (2012). Adlerian personality priorities: Confirming the constructs. *In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nference*, CA: San Francisco.
- Taylor, D. L. D., Ray, D. C., & Henson, R. K. (2015). Development and factor structure of the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 *Archives of Assessment Psychology*, 3(1), 23-26.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1 차원고접수 : 2018. 04. 09.
수정원고접수 : 2018. 05. 17.
최종게재결정 : 2018. 05. 23.

Study on Differential Strategy against The Emotions, Self-Efficacy and Stress in Dependent o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Priority

Joe, Jinhee

Jin, Mikyung

Dept. of Child Welfare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ersonality priority type using Korean version of Adler's Personality Priority Test established by Adler's Personality Priority Test developed by Taylor and Ray (2012). For our study, 436 college students who lived in Seoul and Chung-nam area had been participated. On basis of the collected dat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was performed to confirm whether the alteration of main variable occurred in dependent on the reliability analysis,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4 type of personality priorities(pleasure, government, superiority and comfort)As a result, a positive emotion in dependent on the personality priority showed that a superior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 comfort. Also, a superiority, a pleasure and govern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a comfort under the strategy that considering problem as the key factor. A superiority and pleasu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 comfort under the strategy that considering the social support important. The general self-efficacy in dependent on the personality priority showed that a superior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 pleasure, a government and comfort. Sequentially, a pleasure, was higher than a comfort. The social self-efficacy showed that a superior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a pleasure, a government and comfort. Our study can accelerate the effectiveness in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education after distinguishing the characterization of personality type using Adler's Personality Priority Test.

Keywords: Adler, personality priority, affect, self-efficacy, stress coping strategies